

## 158. 클리닝 의류 사고사례

### (25) 폴리에스터 피치스킨의 승화퇴색

#### □ 폴리에스터 피치스킨의 승화퇴색

##### 해설)

- 검정 코트를 클리닝한 후, 부분적으로 불그스름한 띠 얼룩이 발생되었음. 디지털로 촬영한 화상을 밝고 강한 콘트라스트 처리하면, 전체가 붉어지기 때문에 이 제품의 염색은 Black 염료에서도 빨강색이 강한 염료구성으로 염색된 것이라 볼 수 있음. 또, 봉제 라인을 경계로 좌우의 천 부분의 변색 상태에 명확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용된 옷감이 염색 건뢰도가 다른 로트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.



- 빨강 계통으로 변색되어 있는 부분의 명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변색은 아니고, black 염료를 구성하는 혼합염료 가운데 red계 염료가 용출되어 빨강색으로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음. 또, 유기용제(석유계)의 간이 염색 건뢰도 결과에서도 빨강 계통의 용출이 있는 2-3급 정도의 낮은 건뢰도를 보였음. 한편, 이

제품은 폴리에스터의 극세섬유에 의한 피치스킨 가공이 되어 있어 전반적인 염색 견뢰도가 불량하였으며, 특히, 습마찰 오염 견뢰도는 2-3급 정도의 낮은 결과로 나타났음.

- 퇴색 부위의 특징은 소맷부리, 옷깃 주위, 패스너 부근, 안쪽 전면으로 착용 중 마찰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이며, 뒷 몸판 옷자락 부근에는 앉는 부위에 따른 퇴색을 볼 수 있음. 따라서 이러한 사고는 폴리에스터 분산염료가 표면으로 이동하는 열전이 현상과 승화에 의한 퇴색현상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음

♠ 자료출처 : 송종욱 역, 세탁에서 나타나는 문제의류 사고사례 도감, 한국세탁업중앙회, 2011

[www.textilecare.kr](http://www.textilecare.kr)